

“35년 음악의 길, 인생을 노래하다”

송애란 소프라노 첫 독창회 28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서 개최

전북 음악교육 현장을 지켜온 소프라노 송애란이 오는 28일 오후 7시,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명인홀에서 인생 첫 독창회를 연다.

이번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교사이자 성악가로 걸어온 한 사람의 삶을 집약하는 시간으로 마련된다. 피아노 반주는 이지민이 맡으며, Bach Chamber Players가 특별 출연해 무대의 깊이를 더한다.

송애란 소프라노에게 음악은 단순한 예술이 아니었다. 전북 전주에서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내며, KBS 전주방송국 어린이합창단 활동을 통해 노래로 생의 위안을 얻었다. 중학교 음악 시간, 한 곡의 노래가 그의 인생을 바꿨다. 그 날의 울림은 교단과 무대를 동시에 걷는 길로 그를 이끌었다.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및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후, 이탈리아 Beniamino Gigli 음악원에서 성악을 수학하며 전문 연주자로서의 토대를 닦았다. 이후 그는 중·고등학교에서 음악교사로 재직하며, 교육과 연주라는 두 세계를 씬 없이 오갔다. ‘노래 한 곡이 인생을 바꾼다’는 신념은 한결같았다.

음악교사로 근무하는 동안 임실, 김포, 부천, 무주, 진안, 전주, 익산 등지에서 15개 이상의 예술 동아리를 창단하고 지도한 그는, 전국 에너지경연대회, 농악경연대회, 난타경연대회 등에서 제자들과 함께 여러 차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부천시장상, 교육부장관상 등은 그가 쌓아온 교육의 결실을 증명한다.



소프라노 송애란 독창회 포스터

특히 부천덕산중 재직 시절 창단한 부천오정농악으로 전국학생농악경연대회 우승을 거둔 일은 그녀에게도 잊을 수 없는 순간이다. 당시 뱃속에 있었던 장녀 수현은 성장해 미국 11개 음악대학 대학원 과정에 모두 전액 장학생으로 합격했고, 신시내티 음대 석사과정을 마친 후 포트워스 오페라단 영아티스트로 발탁되었다. 현재는 뉴욕 맨해튼 음대(AD 과정) 장학생으로 활동하며 오페라 주역 무대에 오르고 있다.

2021년 서울오케스트라 콩쿠르에서는 전일중학교 제자 이정인과 함께 각각 중등부 1위, 일반부 1위를 수상했다. ‘시골 쥐들이 서울 쥐를 이겼다’는 평가가 뒤따랐고, 제자는 그 뒤 선화예고에 입학해 전제 수석으로 졸업했다.

이번 독창회는 그의 음악 인생을 아우르는 총결산이자, 인생 후반을 여는 첫걸음이다. 송애란 소프라노는 “늦게 피는 꽃이기에 더욱 깊은 향기를 남기고 싶다”고 말했다. 음악을 향한 한결같은 정성과, 제자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은 이번 무대에 고스란히 담길 예정이다.

독창회를 준비하며 그는 기전여중·기전여고 재학 시절 성악의 길로 이끌어준 작고하신 음악 선생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학업을 지원해 주신 이진우·장인숙 교수님, 그리고 현재까지 지도해주고 있는 김혜정·전소은 교수님과 항상 지원을 아끼지 않고 도와주시는 루디박 테너와 이태영 지휘자에게도 고마움을 표했다.

특히, “연로하신 친정어머니께서 아프신 몸을 이끌고 평생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자녀들을 위해 새벽기도를 하시고 항상 저를 응원하시고 격려해 주시기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며 모든 이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이번 독창회는 박민수 법률사무소의 후원으로 열린다. 예매 및 문의는 전화(063-278-1980)로 가능하다.

35년간 걸어온 자신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음악과 교육자의 길, 그리고 그 깊은 삶의 결이, 6월 28일 명인홀 무대 위에 조용히 울려 퍼진다. /이민호 기자

전북대, 청년 문학상 공모

가람이병기청년시문학상 · 최명희청년소설문학상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국내 대학 최대 규모의 문학상인 ‘가람이병기청년시문학상’과 ‘최명희청년소설문학상’(이하 문학상)을 공모한다고 23일 밝혔다.

오는 8월 11~31일까지 전북대신문사 편집국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공모 분야는 대학생과 고등학생 부문 각각 시와 단편소설로, 시는 시조 포함 세 편 이상, 소설은 한 편 이상 제출해야 한다.

당선자에게는 상금이 수여되며 당선 작품은 10월 중 발행되는 전북대신문 개고기념 특집호에 발표된다. 특히, 지난해부터 총상금 규모가 80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전북대는 한국 문학사에 기념비적인 공로를 세운 ‘난초 시인’ 가람 이병기와 ‘혼불’의 최명희를 추모하고 문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2001년부터 문학상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 문학상은 한국 문단의 굵직한 신예를 발굴하며 명실상부한 문학인 등용문이 되고 있다. 권상혁·김보현·김학찬·



손흥규·이갑수·전아리·허태연 소설가, 박성준·백성웅·이혜미·조율 시인 등이 이 문학상 출신이다. /장은성 기자

제39회 전국춘향미술대전 성료

종합대상 서양화 부문 추항만 작가 ‘바람이 남긴 얼굴’ 수상

남원의 예술혼이 빛난 제39회 전국춘향미술대전이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작가들의 열정이 남원이라는 무대에서 찬란히 피어났다.

이번 대회에는 총 507점의 작품이 출품되어 다채로운 예술의 향연이 펼쳐졌으며, △공예·조각 100점 △문인화 43점 △서양화 66점 △서예·서각 88점 △캘리그래피 138점 △한국화·민화 72점 등 다양한 예술의 빛깔이 하나로 어우러져 전국미술계의 진수를 보여줬다.

종합대상은 서양화 부문 추항만 작가의 ‘바람이 남긴 얼굴’이 차지했으며, 작품은 바람처럼 스쳐간 기억을 화면에 담아낸 서정적 감성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부문별 대상 수상작은 △공예·조각 이윤수 작 ‘유대’ △서예·서각 김정희 작 ‘춘향가’ △캘리그래피 김성미 작 ‘꽃향단상’ △한국화·민화 양희정 작 ‘금강산’ 등이다.

당선작 전시는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2부로, 1부(6월 21일~27일)는 서양화, 한국화·민화, 공예·조각을, 2부(6월 28일~7월 4일)는 서예·서각, 캘리그래피, 문인화 작품을 선보인다. 시상식은 7월 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번 대회는 남원의 문화예술 위상을 한층 더 끌어올리고, 지역 예술의 창의성과 역량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



종합대상 추항만 작가 ‘바람이 남긴 얼굴’

된다. 김광길 운영위원장은 “이번 대회는 예술의 우열을 가리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창작을 존중하고 예술의 미래를 고민하는 장이었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문화가 있는 날, 청춘 마이크’ 무주상상반디숲서 25일 개최

오는 25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무주군 무주읍 무주상상반디숲 1층 광장에서 ‘문화가 있는 날, 청춘 마이크’ 공연이 펼쳐진다. 이날 공연에서는 청년 예술가 아코디언 킵

(아코디언), 우더스(싱어송라이터), 송은채(싱어송라이터), 그리고 조성욱의 육소(마술)까지 총 4팀의 다채로운 무대와 만날 수 있다. 송순호 무주군청 태권문화과 도서관담당

“아코디언의 감미로운 선율부터 싱어송라이터의 진솔한 노래, 그리고 눈을 뗄 수 없는 마술 공연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풍성한 무대가 기다리고 있다”라며 “청년 예술가들의 꿈을 응원하고 관객들의 흥을 돋우게 될 청춘 마이크 공연에 가족과 함께 많이들 와달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문화재단, 한식 인문학 강연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이 우리의 음식문화와 인문학을 접목한 강연 프로그램 ‘전주에서 맛보는 한식 이야기’를 오는 7월 2~16일 총 3회에 걸쳐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23일 재단에 따르면 올해로 5회를 맞이한 ‘한식 인문학 특강’은 전주에서 평소 접하기 어려운 한식 분야의 저명한 명사들을 초청해 음식인문학을 주제로 한 깊이 있는 강연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적 감수성을 높이고, 한식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기획됐다.

이번 강연은 한류, K-푸드, 미식관광, 음식

스토리 등 다양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구성, 이 모든 주제를 아우르는 ‘화합(和合)의 화’를 주제로 진행된다.

세부 강연 일정은 △7월 2일 전해웅 한식진흥원 사무총장 ‘한류 속의 한식’ △7월 9일 유승철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의 ‘음식 이야기의 힘 : K-푸드와 브랜드 스토리텔링’ △7월 16일 김태희 경희대학교 교수의 ‘세상을 바꾸는 미식(美食) 이야기’ 등이다.

특강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진행되며, 음식 인문학에 관심 있는 전주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음식이야기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통문화팀(063-281-1584)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세계소리축제,푸드트럭운영단체 모집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이왕준, 이하 소리축제)는 7월 8일까지 ‘푸드트럭’을 운영할 업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도내에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협동조합 또는 컨소시엄 운영이 가능한 단체다.

모집 규모는 1개 팀으로 제한된다. 선정된 업체는 올해 소리축제 기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내에서 오후 12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을 해야 한다. 전기시설, 다화용 식기, 운영 공간, 홍보물 등은 소리축제 측에서 제공한다. 접수는 소리축제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prideco2019@naver.com)로 보내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